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①

惠可問曰
혜가문왈
若有人 志求佛道
약유인 지구불도
當修何法 最爲省要
당수하법 최위성요
師答曰
사답왈
唯觀心一法
유관심일법
摠攝諸行 名爲最要
총섭제행 명위최요
問曰
문왈
云何一法 摠攝諸行
운하일법 총섭제행

혜가가 물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도를 얻고자 한다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긴요합니까?"

달마스님이 대답했다. "오직 마음을 관(觀)하는 한 법이 모든 행(行)을 다 거두어 들이는 것이니, 이 법이 가장 간단하고 요긴한 것이라 한다."

물었다. "어째서 한 법이 모든 행을 거두어 들인다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觀하는 한 법이 모든 行을 다 거두어 들이는 것"

師答曰
사답왈
心者萬法之根本也
심자만법지근본야
一切諸法 唯心所生
일체제법 유심소생
若能了心 萬行俱備
약능료심 만행구비
猶如大樹 所有枝條
유여대수 소유지조
及諸花菓 皆悉因根
급제화과 개실인근
栽樹者 存根而始生
재수자 존근이시생
伐樹者 去根而必死
벌수자 거근이필사
若了心修道則 省功而易成
약료심수도즉 성공이이성
若不了心而修道 乃費功而無益
약불료심이수도 내비공이무익
故知一切善惡 皆由自心
고지일체선악 개유자심
心外別求 終無是處
심외별구종무시처

달마스님이 대답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만 가지 행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큰 나무의 가지나 꽃이나 열매는 모두 뿌리가 근본이다. 나무를 가꾸려면 뿌리를 북돋워야 살아날 것이고, 나무를 없애려면 그 뿌리를 베어버리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고 도를 닦으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룰 것이고,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를 닦으면 힘만 허비할뿐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선악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구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다.

又問曰
우문왈
云何觀心 稱之爲了
운하관심 칭지위료
答曰 菩薩摩訶薩
답왈 보살마하살
行深般若波羅密多時
행심반야바라밀다시
了四大五蘊 本空無我
요사대오온 본공무아
了見自心起用 有二種差別
요견자심기용 유이종차별
云何爲二 一者淨心 二者染心
운하위이 일자정심 이자염심
其淨心者 卽是無漏眞如之心
기정심자 즉시무루진여지심
其染心者 卽是有漏無明之心
기염심자 즉시유루무명지심
此二種心 自然本來俱有
차이자심 자연본래구유
雖假緣和合 互不相生
수가연화합 호불상생

또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관해야 알았다고 합니까?"

대답했다.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사대오온(四大五蘊:몸의 구성요소인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을 사대라 하고, 육신과 정신작용을 오온이라 함)이 본래 공하여 '나'가 없음을 알며, 또 자기 마음을 쓰는데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분명히 본다. 무엇을 두 가지라 하는가 하면 첫째는 깨끗한 마음이요, 둘째는 물든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란 번뇌가 없는 진여(眞如)의 마음이요, 물든 마음이란 번뇌가 있는 무명(無明)의 마음이다. 이 두가지 마음이 본래부터 갖추어 있어 비록 인연따라 화합하기는 하지만 서로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법홍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회주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약이색견아 이음성구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不能見如來)"

한국불교를 빛낸 역대 조사들의 서릿발 같은 기개가 곳곳에 감돌며 구도의 길을 비춰주고 있는 조계총림 송광사. 송광사 화엄전으로 법홍(法興)스님을 뵈러갔을때, 스님은 '목우산방(牧牛山房)' 현판이 붙은 방에서 〈금강경〉의 한 구절을 쓰고 계셨다. 스님은 '야보송' 등 글씨 십여장을 더 쓰시고는 그 뜻을 자상하게 설명까지 해 주신다. 만나는 누구에게나 책과 경구휘호 등 법보시를 즐겨하시는 법홍스님은 "나 라는 육신은 다생겁래 익힌 습기가 두텁고 탐심과 진심, 치심 삼독의 번뇌가 끼었으니 이 번뇌가 다 녹아없어져 맑은 명경지수가 될 때까지 일념으로 닦을 것"을 강조하시며 은사 효봉스님과 사형 구산스님의 생전 수행 일화를 누차 말씀하셨다.

"번뇌 녹을때까지 일념으로"

· 1931년 충북 괴산 生
· 58년 고려대 국문과 졸업
· 59년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득도
· 74~77년 송광사 주지
· 84년 조계총림 송광사 유나
·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상원사 망월사 김룡사 등 제방선원서 안거
· 현재 송광사 화엄전에 주석
· 저서로 〈禪의 세계〉 〈戒律綱要〉 등

—스님의 은사이신 효봉스님은 38살에 출가하신, 늦깎이신데 수행이 대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은사스님을 늘 그리워하며 수행의 귀감으로 삼고 계신데 효봉스님의 수행을 들려 주십시오.

▲효봉스님은 38살에 중 되어 12년만에 송광사 가서 조실했는데 그러한 사람은 만 명에 하나나 될까 말까예요.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을 8년동안 계속했지요. 스님은 금강산에서 안거에 들어갈 때 미리 대중스님들의 양해를 얻었지요. "저는 늦게 입산하다 보니까 한가하게 정진할 수가 없습니다. 묵언을 하면서 입선과 방선 경행을 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지요. 스님들이 1시간동안 정진하면 10분 포행하게 되어 있는데 효봉스님은 그것도 안한다 했어요. 해제하면 걸망메고 다 만행가는데 효봉스님은 해제 결제도 안 했어요. 계속해서 8년 장좌불와한 것이지요. 보통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정진을 무섭게 했지요.

구산스님 역시 돌위에서 잠자고 미숫가루만 먹고 무섭게 정진했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30리 밖 동네 탁발을 나가 그걸 끓여 잡수면서 장좌불와로 도를 깨쳤지요. 구산스님은 오래된 큰 절이나 돈이 많이 나오는 절은 정기가 빠져서 시원치 않대요. 새 터가 수행에 좋다는 의미에서 1년에 토굴 하나씩 지어 살며 수행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직접 지게로 짐을 지고 나무를 베어 서까래를 만들고 벽을 바르고 구들장을 손수 내가며 토굴을 짓고 밤에는 장좌불와를 해가며 도를 닦았습니다. 구산 스님이 도 닦다가 호랑이 본 이야기도 하셨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태연했답니다.

—불자들중에는 절에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왜 불교를 믿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인간고를 허탈하고 성불하는데 있습니다. 사람 사람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자력으로 닦아 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중생들은 누구나 생사에 매여있어요. 생사에 매여있다는 것은 어디서 오는걸 알지 못하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가고 오는 것을 깨달아 생사에 매이지 않고 가고 오는 것을 임의로 자재하려고 참선하는 것이지요. 세상사람들은 적자생존의 지배하에 부모님 모시고 아들 딸 공부시키며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생사에 매일 수 밖에 없어요. 예술가들은 미의 창조를 위해서, 정치가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위해 일하지만 이게 업(業)입니다. 하지만 인간존재의 근거나 생명실상을 모르고 살거든.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 생사의 근원을 알게되고 선악의 근본을 알게되며 물과 심의 체성을 알아서, 가고 오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되어 어디 태어나는 것까지 알 수 있기에 참선을 하는 것이지요.

참선하다 보면 잡된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효봉스님은 득력(得力)을 강조하셨어요. 득력이란 일체 선악시비에 내 맘이 흔들리지 않고, 공부가 잘되고 못 되는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인데 득력하면 견성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사에 끄달리다 보면 번뇌가 많아 일념이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요? 또 재가불자들중 견성한 이를 보셨는지요?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렸어요. 생활에 시달리고 잡사에 끄달린다고 환경탓을 하지만 결국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의 모든 조사스님들은 다 되었어요. 물론 세속에선 견성이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출가스님들도 주지 등 소임에 매이면 힘들어요. 그래서 초삼스님 같은 이는 일체 소임을 안 살고 순전히 공부만 해요. 77세인데 직접 밥 지어 먹으면서 토굴에서 혼자 공부만 합니다. 철조망 쳐놓고 상좌도 못 들어오게 해요.

효봉스님이 그러셨지요. 평범하고 미혹한 범부가 부처되기가 그렇게 쉬우냐? 죽을 고비를 몇번씩 넘겨야 된다고 했어요. 금강산 유점사에서 선방 살 때 일주일씩 하는 용맹정진을 한철 여섯번 하는 것을 효봉스님 혼자 경책을 다 보셨답니다. 그래 여섯 주를 계속 서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붓더래요. 그걸 이겨냈으니 얼마나 대단한 근기입니까. 효봉스님이나 구산스님이나 늘 단전으로 호흡하니까 아랫배가 나왔어요. 단전으로 호흡을 해가지고 우주의 기를 받아쓰거든. 참선해 득력하면 오래 오래 호흡해 피로가 없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요. 거기에 참선의 묘미가 있습니다.

효봉스님에게 화두 받은 이중에 백련화 보살이라고 있었어요.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 포목 비단 장사하다 자기 살림살이 다 팔아 지리산 내원암에 토굴 지어 20년인가 참선에 몰두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한 소식 깨쳤거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젊어서 스님 될 것을." 했대요. 죽어서 화장하니까 정골사리가 다 나왔어요. 한번 깨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 참선해 한소식 하니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왜 헛 것을 쫓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그 보살 뿐 아니라 친구 여섯명이 구산스님께 계발고 다 증 됐어요. 이처럼 재가인들도 열심히 참선하면 그 경지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정신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유혹에도 쉽사리 넘어가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쉽게 끓고 금방 식는 냄비에 많이 비유하는데 국민들의 정신력 강화나 차분하

신간!

휴대폰만큼 작게!
그러나 깨달음의 울림은 크게 담았습니다.

작지만 그 안의 깨침은 위대합니다.

민족사
작은경전시리즈

① 법구경 석지현 스님 역 / 값 3,300원 /
② 아함경 돈연 스님 역 / 값 3,800원 /
③ 화엄경 김지견 박사 역 / 값 3,800원 /
⑤ 유마경 박용길 역 / 값 3,500원 /

작은경전 시리즈 ④ 묘법연화경 ⑥ 능엄경 ⑦ 부모은중경 · 지장경 ⑧ 금강경 ⑨ 백유경 ⑩ 대반열반경 ⑪ 숫타니파타 ⑫ 본생경 ⑬ 미륵경전 ⑭ 과거현재인과경 ⑮ 밀린다왕문경도 계속 간행됩니다.

***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낯선 포교당에서 일어나는 울고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간

원욱스님의 포교당일기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저… 정말로 스님이 맞아요?"
"그래, 내가 스님이란다! 왜 스님을 처음 보니?"
"예, 저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냥 신기해하는 눈빛의 아이,
스님과 부처님을 모르다니……! 이런 기가 막혔다.

"세상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이름이며, 나이, 생김새,
마음씨 슬픔과 기쁨…….
그들의 이야기, 나의 일상 이야기를 조금씩 적어 놓았지요."

신국판 280쪽 / 값 7,500원

원욱스님은 20년 전 출가하여 중앙승가대학과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경남 함양 안의 포교당에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